

김명순의 창작집 『愛人の 선물』

(匯東書館 발행)

서정자

김명순의 창작집이 『생명의 과실』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인의 선물』 또 한 권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서지학자 오영식씨로부터 김명순의 창작집이 『생명의 과실』 말고 또 한 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필자는 매우 놀랐다. 가로 10.5센티, 세로 15센티 110여 페이지의 『애인의 선물』은 뒷부분이 파손되어 정확한 간행연도를 알 수 없으나 책에 실린 글의 집필 날짜가 1927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회동서관이 37년까지 책을 출간하였으니 27년부터 37년 사이에 출간된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김명순의 작품연보에서 1927년부터 1937년까지 발표된 작품을 보면 왕성한 필력을 보이던 1925년과 1926년 이후 1927년부터 그의 작품 발표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1929년에는 소설 「모르는 사람같이」 한 편만 발표하는 등 후기에 이르러 작품 활동이 뜸해진 것으로 되어 있다. 1927년을 전후하여 그는 영화에 출연하는데 이 책이 발간되는 시기는 그가 영화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 활약하던 시기이거나 그 직후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책에 실린 작가의 사진이 눈 화장을 질게 한 뚜렷한 윤곽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책의 제목도 『愛人の 선물』로서 『生命의 果實』과는 차원이 다른, 어딘지 상업주의의 입김이 작용한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겉 표지에는 경성 회동서관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 속표지에는 회동서관 편집(編集)이라고 되어 있어 출판사나 영화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표지의 그림도 긴 머리의 여성이 무릎 꿇고 앉아 중동의 전통문양이 그려진 향아리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여성의 모습을 나신과도 같이 육체의 곡선을 살린 채 그리고 있다. 누군가가 대중 취향을 고려하여 책을 만든 것일까, 여성작가이며 시인인 여배우 김명순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어쨌든 『생명의 과실』출간 전후 왕성한 작품활동을 한 작가가 영화 출연 등으로 문필활동이 뜸해진 것으로 생각했던 시기에 발간된 창작집이었는데 우리의 놀라움이 있다. 지금까지 나온 김명순의 작가와 작품 연보는 1981년 도서출판 솔피에서 나온 김상배 편 『나는 사랑한다』에 실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의 자료가 덧붙여진 정도가 전부이다. 김명순은 1917년부터 1939년까지 소설, 시, 수필, 논문, 희곡, 번역시, 번역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백여 편 넘게 썼으며 그 문학적 생애는 23년 넘어 걸쳐 있다. 이번 제2창작집일 『에인의 선물』을 발굴 소개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에게 김명순이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한 반성이 있었으면 한다. 오영식씨의 「탄실 김명순 서지략고」(오영식 『佛巖通信』 제9호 「彈實 金明淳 書誌略考」)에도 김명순의 새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필자도 눈에 띄는 자료를 몇 개 뽑아 놓은 게 있다. 김명순의 작품이나 생애에 대한 자료들은 신문 잡지들을 뒤지면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愛人の 선물』표지에 이어 사진이 실린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 속표지에는 『彈實 金明淳 作 愛人の 선물』 匯東書館編集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 페이지 머리말은 1, 2절의 시로 되어 있다.

머리말

1.

강변 버드나무에
내 작은 키를 대어보며
기자묘 기슭에 꽃을 딸 때
아아 아름답든 그 노래에

2.

지금 나는 成長하고
江邊 垂楊은 老衰하였다
그러나 내 노래는 悲歌는
어느 날에 幸福되어보리

이제 이 창작집의 목차를 보자. 작품은 시, 산문, 소설, 각본 네 분야의 것이 실렸는데 시가 10편, 산문이 2편, 소설이 2편, 각본이 1편이다. 시의 경우, 지금까지 확인된 작품 연보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작품이고 산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설의 경우, 「일요일」은 매일신보 1926년 11월 연작소설로 실렸던 것이고 「분수령」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각본도 처음 소개되는 것인데 희곡이 아니라 각본이라고 한 점은 역시 영화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페이지는 목차에서부터 1페이지로 매겨져 있다.

愛人の 선물 目次

詩

두마음10/逢春1/秋景2/哀想3/咀呪된 노래4/貞節5/불꽃6/郭公7/希望8/
戀慕10

散文

鄉愁12/愛?28

小說

分水嶺37/日曜日50

脚本

두 愛人61

이 목차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10페이지에 실린 시 「두마음」이 첫 머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머리말이 아님). 또 3페이지에 실린 시 「逢春」이 목차에는 1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4페이지가 될 그 다음 페이지는 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등 책 편집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애인의 선물」에 실린 원문 소개의 단편 「분수령」은 이 봄 동경 T여자학원 ×과를 마치고 귀국한 희종이라는 여성이 결혼을 할 것인가, 더 연구할 것인가, 신앙생활 또는 봉사생활을 할 것인가 분수령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희종이 선형과 결혼을 망설이는 것은 열 일곱 살이었을 때 선형이 강제로 희종의 정조를 유린하고 임신한 희종을 돌보기는커녕 죽는지 사는 지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물 넷이 된 희종은 칠 년 전의 과거를 용서하고 다시 결합하자는 선형과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전탕(錢湯, 공동 목욕탕인 듯-인용자 주)에 간다. 희종은 목욕하는 어린이를 보자 가슴속의 상처가 되살아난다. 동시에 장난감 분수기에서 자신의 분수령을 떠올리고 현실(결혼)과 이상(공부)의 양 갈래 길에서 인내 고난 진보를 의미하는 이상을 택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주인공 희종이 남성을 육체관계밖에 모르는 매우 동물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점이다. 이런 육체 내지 남성을 극도로 부정하는 태도는 각본 「두 애

인』의 여주인공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분수령」의 주인공 희종은 자신의 얼굴, 몸매의 아름다움을 거듭 의식하고 있다. ‘결혼기피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결혼 대신 이상을 택하여 더 공부하러 동경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분수령」이다. 김명순의 소설이 자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 비추어 이 소설의 선형은 김명순으로 하여금 자살을 기도하게 했던 강간사건의 ‘이모 소위’를 떠올리게 한다. 소설에 나오는 대로 김명순 쪽의 청혼을 거절했던 ‘이모 소위’가 몇 년 후에 결혼을 청해 왔던 것인지 모른다. 김명순의 문학에 큰 그늘을 드리운 자전적 요소가 드러나는 중요한 단편이다.

김명순의 새 자료 『愛人の 선물』을 발굴하여 여성문학 연구에 보탬이 되도록 선뜻 건네준 오영식씨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김명순 전집 발간을 서두르려고 한다. 동시에 『애인의 선물』의 존재를 처음 알고 절실하게 느낀 것은 신문 잡지를 뒤져 김명순의 자료를 충실하게 모아 김명순론을 다시 써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평생 실로 열심히 글을 쓴 작가에 대한 아니 한 여성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자료/ 김명순 단편 「분수령」

복사본 첨부

■ 필자 : 초당대 교수

分水嶺 (水嶺)

회중은 세시사십분에 그저밤새운피로(疲勞)를 곳치려고 죽육탕에 갖
섰다

그는 자신의 회색옷에 싸히운모양이 체경속에 빗치어되일때 무얼인
지 말할수업시 저상한감상속에 저저지는것을 의식하였다

그의세계에는 아조김흔어느곳으로부리 아조김흔어느곳까지 장송곡
(葬送曲)보다 더차량한 멜로디가 낮후낮후 울러오는곳이 고달픈

비에(悲哀)속에 숨막히우는것같하였다
그는나라진행등으로 옷을벗어서 팡주리에달아놓코 죽육탕으로들어

愛人의 시

이런 것이 고귀한 것은 아니지만 비누를 싼 손으로 잔을 들고 노래도
화려한 것을 받기 드이리 믿고 저리 믿다가 다시 하나씩 남손에 들어서 음
저는 노래고 열이났다.

희종은 귀여운 어린이의 천진스런 웃음을 바라볼 때 마음껏 마음껏 정하
라고는 하였으나 무엇인지 그 증은 가슴속에 영원히 쇠잡가 버린 비밀은 이
작고 흔들니우는 것 같하였다.

그는 아련히 우유를 속으로 들여다가 더운 물에 몸을 담그면서 작야에 선
형의 이르켜 준 문제를 또 다시 생각해 보았다

……저는 이제 와서 내가 내 생활 규율을 지키기 위하여 남의 간판이라던
지 정과 문제(情果問題)가 온 것은 말할 수 없노라고 하어도 드는 게 못 드는
제 자기 말만을 주장하려고 하였다

愛人の 선물

가 다가 옷을 버서 버린 그의 전체가 다시 거울에 빗치어 보일 때 한층 더 나쁜 한 부분에 취하여 집을 깨달았다.

그는 기지개를 한 번 하고 옥육향안으로 들어갔다. 옥육향안 한 편에는 삼은 몸을 씻기어 주면서 한편에 불꽃을 새개나느라 늦코 작난감을 그우해 띄워준 채 그리로 만정신이 팔나는 어린이에 게

「범순아 어서 씻고 가자. 벌써 아버지 오실 때 하나냐」 하며 타일느고 잇섯고 한편에는 일어나들이서 벗이 느러안져서 서트등을 씻기어 주고 갑사한례를 하다가 회종의 고상한 재래(姿態)를 치어타 보고는

「왕녀와 갖치 귀여운 처녀」 하고 이야기 하였다

회종은 조용히 조선사람 모니가 안준 바로 이삼보압해안져서 손발을 씻출새 비록 어워고 창백하나 가즈던히 구조된 날 신선한 해경이 데리서삼

고 (은근한) 의의종자(種子)를 내게 할 작고도 많은 모된 관계를 동한 하하였스

며 심지어 회종의 어린몸이 죽고살 것도 무시하지 않았는지나

그런데 지금와서 모든 과거를 용서하라고? 사람이 참으로 누우치고

용서할 수가 있술가 심히 드문 일이지나 지안을 것이 다.....

회종이가 죽을 통박 그로 나와서 몸에 비누질을 하려고 할 때 통작란에 실종

이 난어린 아 해는 회종의 열초로와서 회종의 무욕소용을 되려다 보았다

몸을 씻든 회종은 고요한 어머니의 응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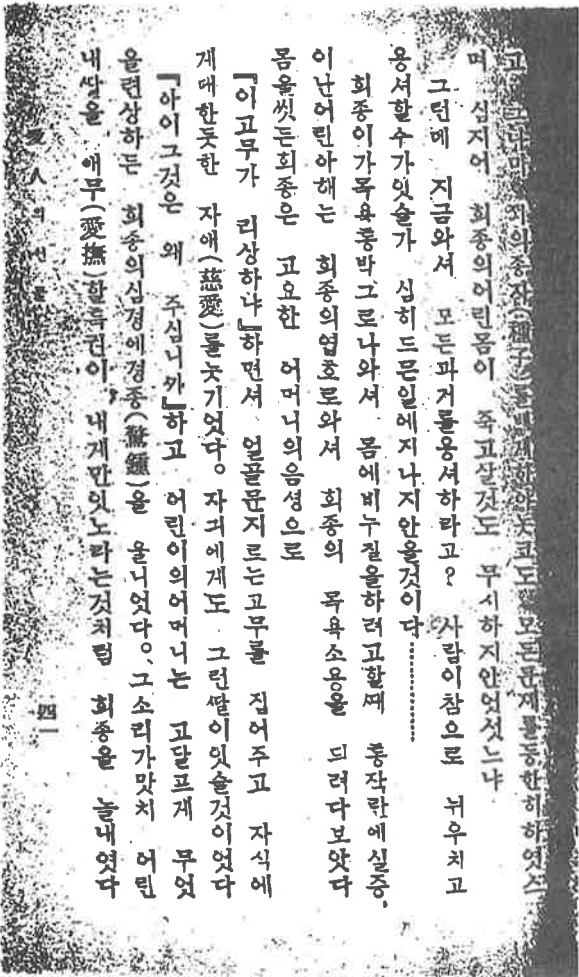
「이 고무가 리상하냐」하면서 일물론 지르는 고무를 집어주고 자식에

게 애한듯한 자애(慈愛)를 나타기었다. 자기에게도 그런 딸이 있술 것이었다

「아이 그것은 왜 주심니까」하고 어린이의 어머니는 고달프게 무엇

을 런상하든 회종의 심정에 정종(驚鐘)을 울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어린

내살을 애무(愛撫)할 습관이 내게만 잊노라는 것처럼 회종을 놀내었다



무엇인지

선형이라든간은 마성(魔性)의 남자 갖치 두려움을 이르기

는 리성이 다. 저의 천성은 남녀의 관계밖에 흥미업는 것이 아닐가? 인정

도입고 신념도입고 리상도입시 단지 남녀의 관계밖에 아모것도 모르는

하층동물(下層動物)을 내가 잊지 하여야 할 것이랴?

그러나 나는 그와 연결(連結)하였던, 파를 가진 것이다!

그러하고 내가 지금 그와 결합(結合)하여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할가?

아니다 아니다 모든 파가는 거듭오지 못할 것이요 온갖 파실은 다사

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리상이 자괴를 완전한 신(神)의 싹터지므로써

도덕을 근본으로 한 공생계(共生界)에서 영원한 생존을 계속하는 것으로

관념(觀念)할 때 선형은 영원히 내세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마성(魔性)의 그것! 열일곱살이 겨우 된 어린 소녀에게 고약한 인생

의 비밀을 새이여 그의 애타호기심(好奇心)으로 깨야욕(野慾)을 만족하

四〇

『그러세요』하고 회종은 자기의 남모르는 빈민이 외친 한 것 같기도 넘려
있었다.

어머니는 그 쌀의 손에서 귀여히 고무를 빼아서서 회종의 손에 쥐어
주었다

맛춤 내시를쳤다.

『지금쯤 선형은 왔다 가리라』하고 회종은 넘려하였다. 회종과 선형
은 이새맞나자는 약속이 있엇던 것이다. (그들은 전에 부부이엇었다.)
그렇치마는 그는 급히 목욕탕박그로나가서 옷을 남고 밤비 자귀의
러관까지 갈수가 업섯다. 그는 도로혀 천천히 몸을 씻었다. 그는 어릴새는
어머니의 손과 파유모의 손에 씻기엇슬것이오 자라서는 자귀가 날마다 씻고
윤길너서 조화있게 발육되고 한덕잇고 율력한 피부를 소유하게된 자신의
신체를 애무하였다

사람의 신

회중은 일어나 열광을

어머니는 쓰다 그 열에

「거 언니 어서 내려라

종을 보고 만민의 우세를 띄우고는

「이애는 아무것이나 보면 부럼입니다

이나 되겠습니까」하였다

「스름내살이올시다」하고 회중은

한번 내려다 보았다. 어린이는 어머니의 말이 무서운지

도 어찌케가고늘지 색감이 냉큼 안오는 모양으로 회중의 열광만치

다 보았다. 어린이의 어머니는 다시 말을 하여 「아이고 어리여도 보이시지

나는 아주 열철팔세밖에 안되어 보이기에 이애 더러도 언니라고 일뵈지

이애게도 맞춤당신가 온 언니가 잇답니다」하였다.

의한전상(轉相)으로 지금내 환경과 방불하다고 법연히누기었다。

X X X X X X X

그는이름에 동경 T 노자화원 X X 파를맛치고 자기의외로운생애를이
드나안전한곳에 의지하도록 사사모사(事思謀思)하던것이었다。 선행이
와 아조혼인을하여버릴가? 더연구를하여나갈가 신앙(信仰)의생활도
부사전(奉仕的)생활。 그는바로 네갈래로길갈년 분수형우해와태를게
선것이였다

그는 단 지선형을위하여 조선에도와서 중대한승락을하지안으면안
될이시간에 외인(外人)이정영하는전함(鎗湯)속에안져다。 그도난처한정
변이있었다。

일초분을다. 도아 조곰느리고 조곰싸른인기일종이 그의일생을어느편

愛人의 선물

四五

『아름다운이』라고 일컫는 것은 희종을 탄미(噴美)하면서 고만
 독육탕박그르나갔다.

어린이와 그 어머니는 아득도 썬물밀고잇었다. 그들은 독육이타면맛
 치 한냄매이백기는것갓치 씻고 쓰싯고 하는사람들중에 하나이엇다
 어린이는 되립씩씻기어주라는 어머니의손을피하야 부리세로만든
 난감을가지고들었다 그작난감들중에는 라원형으로리상한종을만든다음
 에그가운데 가느다란 판을세워서 미호로 물을저축할스륙 우호로썬
 어올니는분수기(噴水器)가잇었다.

고사리갓흔 적은손으로 물을용크러다가 흥에너오면 물은 가느다
 란판으로올나가서 새갈내네갈내로 썬어오르다가다시내려오는것이엇다
 희종은물담기는 저수기(貯水器)를 바라보고썬어오르게된구조와 물
 갈니는리치를 생각하다가 자기의반민과 고만 혼동하여 저것도우주

황이 전개(展開)되어 보인 다. 상길의 청교도적(淸敎道的)인

그는 이 지독한 대조를 보고 파거와 류련되는 선형의 일을 아조운자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느린 행동으로 이려서야 할 것이었다.

X X X X X X X

『애기의 작난감은 의색기도하다』하면서 회중은 어린이에게 말을 걸고
는 다 씻고 맑은 물까지 꺼낸 정된 몸을 다 시 목욕 속속해 담었다.

『언니 이거 줄가』하고 어린이는 분수기를 회중에 게 향해야 처들었
다.

『그것은 아기 작난감이니 아기가 가져야지 언니는 더 큰 분수형(分水嶺)
을 마음속에 가졌단다』하고 회중은 고만 차게 우서 버렸다.

愛人の心

四六

으로나 치우치게 할 것이었다

그는 자기를 향하여 서로 이라고 손질하는 두 갈래의 길을 택하느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갈래의 길압해는 선행이 가졌고 한 갈래의 길압해는 회종의 리상이서
있다. 하나는 신벌개서 부르르고 하나는 새파래서 부른다 한 길에는 볼
길에 매일 염녀가 있고 한 길에는 어름에 어름 염녀가 있다
그는 볼에 타 죽을 만치 어름에 어러 죽을 것을 무서워는 한다 그러나 선

형에게 유련(留戀)되는 바로 인하여 자기의 리상을 허러 버릴 수는 업술 것이
다. 하 것 마는 그는 완고 스키운 결혼기피증(結婚忌避症)에 걸렸든 이 만치
그 자신 안에 무엇이 아 죽 선형을 요구 하고 이었다. (그는 두 번 혼인하기를 쓰리
는 너 자 이 었 섰다)

한 길에는 절루 부패 퇴폐물의 미한 비릇이 형성색으로 비이고

어린이는 회종의 밑에 흠뻑가리고

『언니나도가요 언제가요언니』하며조르는속이었다

『오늘밤에 언니는 덕공부하러동경으로간단다』하고 회종은진정으로
어린이에게 고백하였다.

회종이가 옥유탕문을 나섰을때는 어린이의모녀도 이미들아가버린
엇섯던것이다.

그는러관으로도타가자마자 집을살어가지고 룡산으로향하여 나갔다
길가에는 아가시아의향귀가늡혀엇섯다。(끝)

愛人の 선물



四九

어린이의 어머니는

「이동리계심니까 놀이룩유향에 오시었지요」하고 부렀다
회중은 서슴지 않고

「동경이었다가 잠깐 단말너 왔답니다」하였다
어린이의 어머니는 동경이라는 말이 반가운지

「동경계시었지요 거기서 공부하심니까 이에 음씨들도 동경서 공부한
답니다」하고 못지 않는 말까지 대답하였다. 아 마 그는 누구의 후취부인인모
양이있다.

「언니 동경있서요 음바도 동경있지요」하고 어린이는 정진 회중에게
나서고 자꾸 모양이었다.

「그러세요」하고 어머니에게 묻지 대답을 한 회중은
「아기도 동경가고 싶지 않은나」하였었다